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 인천교육혁신지구 이야기

# CONTENTS



# 인천교육혁신지구 .....	03
# 민관학 거버넌스 .....	04
# 우리마을교육자치회 .....	05
# 교육혁신지구별 지역특화 프로그램 .....	06
# 마을연계교육과정 .....	08
# 마을학교 .....	11
# 인천마을교육공동체 .....	16
# 교육협동조합 .....	17
#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	19
# 우리들의 인천교육혁신지구 이야기 .....	21
[마을연계교育과정] 동수마을교育과정 이야기 .....	22
- 인천동수초 교사 신현주	
[마을학교] 온마을학교 이야기 .....	24
- 온마을학교 아름다운 벚과 함께 미우랑 Book&Art 강사 방세영	
[교육혁신지구] 2인 3각 경기, 함께 하실래요? .....	27
-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유혜경	
[교육혁신지구] 미래교육지구 이야기 .....	30
-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행정팀장 김정욱	
[교육혁신지구]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 .....	32
- 남동구청 주무관 이시지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을 소개합니다. ....	34
- 선학중학교 학생 윤채원	
[학교 내 교육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의 주체로 서다!! .....	36
- 인천서흥꿈세움 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강미영	
[마을기반 교육협동조합]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 .....	38
- 사회적협동조합 이소 이사 유혜숙	
[마을교육학습공동체] 환경 관련 '으쌰으쌰' 마학공 이야기 .....	40
- 마을교육학습공동체 으쌰으쌰 대표 전수영	

# 인천교육혁신지구

## 교육혁신지구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자치구 또는 자치구 일부 지역

## ▣ 교육혁신지구 현황

2015년 지정

미추홀구

2017년 지정

계양구, 부평구, 중구

2019년 지정

남동구, 서구, 연수구

## ▣ 인천교육혁신지구 중점 사업



# 민관학 거버넌스

## Q 민관학 거버넌스란 무엇인가요?

A 민관학 거버넌스는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관 중심의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민과 학이 함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원리입니다.

## Q 민관학 거버넌스는 왜 필요한가요?

A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민·관·학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민·관·학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교육혁신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Q 민관학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되나요?

A 인천교육혁신지구는 크게 4가지 유형의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역 단위 거버넌스**는 시청과 교육청 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법제적, 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초지자체 단위 거버넌스**는 구청과 교육지원청이 연계하는 교육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와 주민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셋째, **동 단위 거버넌스**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 역할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주체가 된 교육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넷째, **학교 단위 거버넌스**는 학교, 학부모, 주민이 협력하여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우리마을교육자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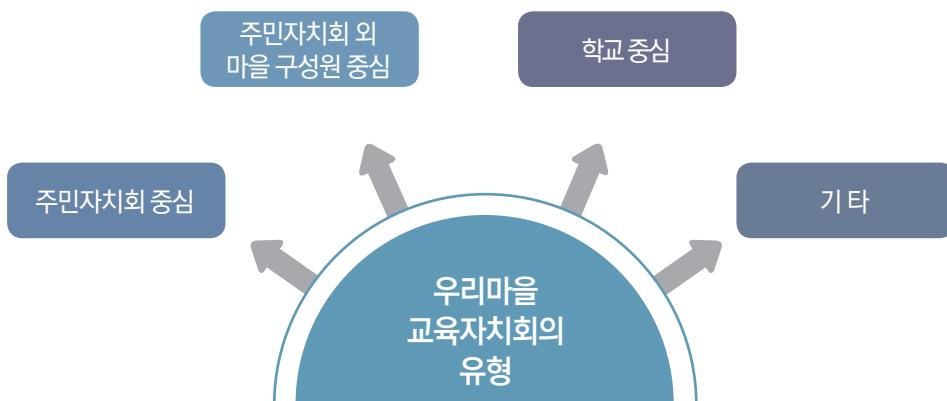
## 우리마을교육자치회란?

마을교육자치회는 생활권 단위에서 민·관·학이 협력하여 마을연계교육과정, 마을학교, 평생교육, 사회적 돌봄 등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거버넌스를 말합니다. “우리마을교육자치회”는 인천형 마을교육자치회의 고유명사입니다.

## ❶ 우리마을교육자치회의 구성

- 마을교육자치회의 구성은 생활권 단위(읍면동)의 행정책임자, 주민대표(주민자치회), 학교 관계자, 학부모, 주민(마을교육활동가), 학생 등으로 구성됩니다.

## ❷ 우리마을교육자치회의 유형



## ❸ 우리마을교육다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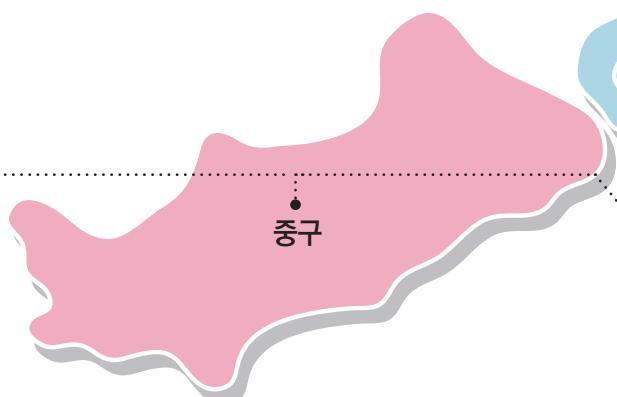
- “우리마을교육다모임”은 우리마을교육자치회의 정례화된 회의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지역의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교육혁신지구별 지역특화 프로그램

※ QR코드로 각 교육혁신지구 사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오케스트라, 합창단)
- 서구마을사전
- 서구 교육자원 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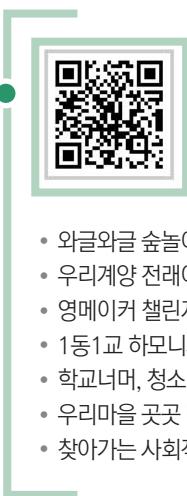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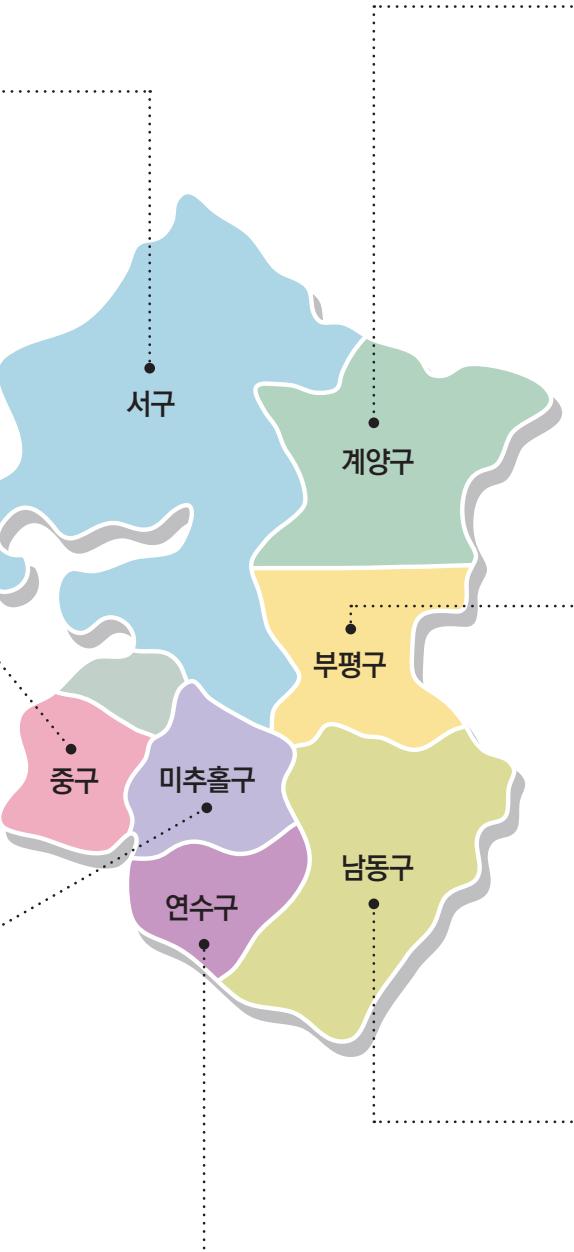


- 근대역사 문화예술마을
- 자연 친환경 마을
- 문화예술 체험교육  
(교육연극, 클래식공연, 찾아가는 미술관)
- 책마을 프로그램



- 온마디활동가 및 마을해설사 운영
- 미추홀 마을 탐방사업
- 책마을 프로그램

- 마을과 함께하는 온-오프 우리학교 운영
- 대학-중·고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학교와 마을, 예술로 웃입니다



# 마을연계교육과정

## 마을연계교육과정이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과정

### ④ 마을연계교육과정 모델학교

- 대상: 비교육혁신지구 포함 인천 관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 역할: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교의 중심교 역할
- 과제: 학교단위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운영,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사례 공유
- 현황

년도 \ 지역	비교육혁신지구						합
	초	중	동구	옹진	강화	일반고	
2020년	7교	3교	초 2교	중1, 고1	초 8교	3교	25교
2021년	6교	3교	초 2교	중1, 고1	초 8교	4교	25교

### ⑤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교

- 대상: 7개 교육혁신지구 내 전체 초·중학교
- 운영 내용: 학교단위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특화된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 지원: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
- 현황

년도 \ 혁신지구 (학교수)	계양구 (41교)	남동구 (61교)	미추홀구 (35교)	부평구 (63교)	서구 (70교)	연수구 (51교)	중구 (25교)	합 (346교)
	계양구 (41교)	남동구 (61교)	미추홀구 (35교)	부평구 (63교)	서구 (70교)	연수구 (51교)	중구 (25교)	
2019년	40교		35교	6교	65교	39교	23교	208교
2020년	39교	39교	35교	60교	66교	38교	23교	300교
(모델학교)	40교	42교	35교	60교	67교	43교	24교	311교
	1교	2교	0	3교	1교	1교	1교	9교



## 마을교육 교재

### 담당 교육청

### 마을교육 교재 개발 현황 (2020년~2021년)

#### 남부

- 우리 마을에 놀려ON 워크북(초등)
- 우리 마을에 놀려ON 워크북(중등)
- 지역화 단원 보조교과서 (종구, 미추홀구)
- 마을교육자원지도
- 탐방교육활동 워크북 (미추홀구)
- 2021 중구교육혁신지구 매거진
- 2021 중구교육혁신지구 홍보 영상
- 미추홀구 골목골목 교육 이야기 웹매거진

#### 북부

- 부평의 생활 활용자료
- 부평마을교육 이야기
- 부평전통시장 체험활동
- 퀴즈쇼! 부평역사로드
- 3학년 사회과 지역화 장학자료 · 부평의 생활

#### 동부

- 마을교육자원지도
- 학교와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 마을자원목록
- 학교와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사례집
- 마을교육 온라인콘텐츠 워크북
- 3학년 사회과 지역화 장학자료 · 남동의 생활
- 3학년 사회과 지역화 장학자료 · 연수의 생활

#### 서부

- 계양에서 넘나들며 배우기(초·중등)
- 마을아 안녕 문화유산 영상콘텐츠 (계양구편, 서구편)
- 마을에서 미래의 꿈을 키우다
- 옛이야기 영상콘텐츠 (계양구편, 서구편)
- 우리마을 계양구 구석구석 3-1, 3-2
- 우리마을 서구 구석구석 3-1, 3-2
- 계양교육혁신지구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사례집
- 서구교육혁신지구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사례집

## 시교육청 마을교육 지원단

1. 지역연계 마을교육 프로그램 5종 (2020년)
  - 동물복지와 연계한 생태 및 생명 존중
  - 교육연극을 통한 민관학 거버넌스
  - 영화로 읽는 마을교육공동체
  - 청소년 사회참여
  - 마을연계 학교텃밭 교육 프로그램
2. 마을교육 아카이브 (2020년)
3. 마을연계 동아시아시민교육 프로그램 (2021년)
  - 생태시민교육 (PPT자료 3종)
  - 인권평화교육 (온라인 방탈출게임 4종)
4. 홍보 영상

교육혁신지구



마을연계교육과정



### 마을연계 동아시아시민교육 프로그램, ‘인동시.com’

- ‘인천에서 동아시아 시민 되기’의 약자로 인천의 선생님들과 마을교육활동가들이 함께 개발한 온라인 추리게임 형식의 마을연계 동아시아시민교육 프로그램
- 인터넷 주소창에 ‘인동시.com’ 입력 또는 모바일 네이버앱/다음앱에서 ‘인동시.com’ 입력



### 마을교육자원

- 교육혁신지구 민관학 협의체 중심으로 마을교육자원 588건, 온라인 마을교육 콘텐츠 247건, 오프라인 마을교육 콘텐츠 26건, 동아시아시민교육 마을교육자원 236건 탑재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특화 → 인천마을교육공동체 → 마을연계교육과정 → 마을교육 자원목록 (<http://www.ice.go.kr/main.do?s=tow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을학교

-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에 의거 7개 교육혁신지구 마을학교 운영을 지원합니다.

## 마을학교란?

마을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친화적이고, 민주적공동체로서의 학교 밖 학교를 말합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마을학교 공모사업 공고는 매년 초(2월~3월 정도)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학생 모집 공고는 학교로 안내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님은 추후 안내를 참고하세요.

## 2021년 교육혁신지구별 마을학교 현황 (2021.7.28.기준)

### 계양구(13개)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032)546-9342, 9344

프로그램명	운영 단체명
끼치마을에서 꿈꾸는 우리들세상	작전마을학교네트워크
천연염색교실 자연으로 물들이다, 목공교실 나무야놀자	애플트리
행복한 마을학교 공감	행복한마을학교 공감
앗! 이걸 몰랐네, “쓰레기가 자원이에요”	계양1동 주민자치회
브레이нст리밍 미술놀이	미술달 작은도서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청랑
마음자람놀이학교	마음자람놀이학교
마음에 드는 학교	돌멩이국도서관
계양산 숲벗줄 놀이학교	숲에내리는꿈동아줄
3D펜 예술학교	워크핸즈
와글와글 놀이터	(사)놀이하는사람들인천지부
행복한 마을학교	감성수수
韓-문화놀이터	다정다감인성놀이터

### 서구 (20개) 서구청 교육혁신과 032)560-0875, 0876

프로그램명	운영 단체명
나는야 아티스트	다온
오손도손 다락방위 만들까? 전통문화체험 창의교실	한국전통문화예절원협동조합
방과후 마술학교매직 메이커	가좌청소년센터
나무로 Game! 깨임!	우리동네목공방협동조합
함께 놀며 배우자	서구역사문화연구회

별별놀이터	서구 세대공감놀이터
서동이가 사는 스마트 에코 마을의 비밀과 미래를 여는 인공지능 캠프	융합메이커 상상나래
서동이의 마을탐험	옹기종기 모여 힐링앤편
어.쩌.다.청.소.년	도담도담
함께여서 행복한 아띠놀이터	서구마을놀이학교
동네 이모삼촌들과 함께하는 방과후 교실	검암동사람들
드론으로 우리 마을 환경 지킴이	한국코딩드론 메이커스
서구마을 공동체 우리마을N	서구청소년센터
Z(자)구를 지켜라 (지구를 위한 Z세대 환경 Maker 운동)	검단청소년센터
동심 쑥쑥, 창의 쑥쑥	불휘김은 한문화한지킴이
서구문화원 청소년 웹툰교실(feat. 나만 아는, 우리동네)	서구문화원
하랑 마을학교	이든샘 작은도서관
In 서구 우리는 음악마술사	예술놀이터 초록여우
연청이네 바리스타 '희망이음'	연희청소년센터
서구 알리미 특공대	서구 문화 알리미

## 남동구 (20개)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032)453-5893

프로그램명	운영 단체명
남동구마을풍물패 전통타악과 상모놀이	풍물패 누림
남동구를 디자인하다	꿈CODING
마을속에서 성장하는 나를 찾는 문화예술 창의체험활동	남동!상상예담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체험	퍼즐
그림책으로 마음토닥	그림책 상상
나도 우리동네 메이커	메이커스테이션
더 플랜츠	솜솜페이스 페인팅
마을과 함께 텃텃교육 마을과 연계하는 텃밭농사	SW청소년교육연구회
숲체험 환경교실	반딧불이환경교육센터
얘들아! 마을에서 놀자.	와글와글 작은도서관
책과함께하는 창의체험학교	꿈단지
우리는 마을의 작은 그라타	만수꿈말교육공동체
'어깨동무' 국악교실	국악창작소 놀이터
환경 좀 아는 10대	콩세알도서관
숲에서 향기랑 놀자	풀내음밤나무숲
남동 청소년 마을크리에이터 학교	남동희망공간
반디 정원에서 꽃과 함께 놀자	반디우리들 세상
우리가 만드는 꿈 Space	남동마을교육공동체포럼
디지털 리터러시 pj'2031타임머신'	삶디자인교육연구소
모두 다 꽃이야!	해피링크

## 연수구 (18개) 연수구청 평생교육과 032)749-7253

프로그램명	운영 단체명
전지적 연극시점	연수구 연극협회
영어로 즐기는 글로벌 연수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리들교회
신나는 체험활동으로 코로나를 이기자!	라라도서관
하늘의 울림, 연수와 통하다	사단법인 더오름
전통의 소리로 찾아가는 연수 아이들 (단소교육)	퓨전국악단 구름
컬러메이커	자연과 창의성
경계를 넘는 아이들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에코지능-up, 우리 마을 환경 지킴이	(주)글로벌교육공동체
문화 곳, 연수 마을을 그리다	사회적협동조합 이소
알록달록 우리는 미술 탐험대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
즐거운 차생활	인천다송예절문화원
숲속의 과학자	한국미래인재개발센터
우리 안의 작은 세상, 그리고 소통	한국청소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브랜드로 풀어가는 세계문화체험	기빙트리
무드테라피와 함께하는 청소년 커뮤니케이션 리더교육	송도4동 주민자치회
탐나는 지구마을 놀이터	꿈누리, 진로교육동아리
학교 밖 힘쎈 과학놀이터	꿈프로젝트클럽
우리 마을의 과거와 미래 유산을 찾아서	우리동네 한국어

## 미추홀구 (35개) 미추홀구청 평생학습과 032)728-6541

프로그램명	운영 단체명
골목에서 만나는 창의 융합미술	그림꽃
“지구특공대” 2021 숲을 지켜라	극단 아토
명화 꼼지락 챌린지	꼼지락
절기로 배우는 제철음식과 꽃	꽃차마실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체험	다독다독마음터
우리마을탐험대 (길찾GO,길만들GO)	다채로움
아기뚱아기뚱 봉사 한걸음	두레정원사회적협동조합
유카즈온더 미추홀-주안	미추홀 인 주안
우리모두 숲으로 go~gosing	반딧불이환경교육센터
우리마을탐험가, 3D프린팅 마을 만들기	범파민속문화박물관
나와 너, 내가 살아가는 우리 동네	보드랑
사랑팡(과자케익 만들기)	사랑팡 사회적협동조합

밥은 하늘입니다.	식생활교육 남구네트워크
Happy 꾸러기 음악대	신기중앙침례교회
우리동네 북 큐레이터(그림책큐레이터&그림책작가)	아름다운 벚 <미우랑>
재미있는 미추홀 이야기	역사랑 명화랑
나 프로젝트(I PROJECT)	예그리나
오색단청 체험교실	오색단청
나는야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우리랑놀자
내가 우리 마을 전시 기획자!	온하수미술관
도서관 농부학교 「허수&아비」 및 독서 원예 활동	주안도서관
에코 체인지 메이커(ECM)	(주)에코어스
세계 茶(차) 역사와 함께 떠나는 茶(차)체험	차오름 동아리
전래동화와 함께하는 힐링푸드테라피	청년예찬
체인지 메이커 우리마을 기자단!	청청프로젝트연구소
왜, 미추홀이지?	학산학 연구회
숲벗줄 감정표현 놀이세상(숲·감·세)	한국숲생태놀이문화협회
생태·환경 - [자구마을]	협동조합 다락
흙놀이도예교실	흙놀이도예교실

## 중구 (15개) 중구청 교육혁신과 032)760-7932

프로그램명	운영 단체명
풀앗이 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엠커뮤니티
내가 쓰는 마을동화	우리랑 놀자
로봇과학자를 꿈꾸는 영종의 청소년	국제 청소년로봇연맹
푸드야, 그림책아 놀자!	행복찾기
영종도·용유도 향토 문화유산을 찾아서	인천 중구 향토문화보존회
미래의 섬 영종도	영종도미래전략연구소
감성과 함께하는 과학교실	청청:하다
찍고 질문하는 어린이 지역탐사대1기	토론아카데미 들꽃도서회
우리동네 신기한미술 다락방	다락
알콩달콩 책 놀이터	알콩달콩책놀이터
하늘 북 나래	하늘북나래
딩가딩가	해피뮤직
영종이야기교실(스토리랩)	영종이야기교실
별하 작가와 함께하는 영종환경사업아이클링	영종총연녹색봉사단
도자기 핸드페인팅	위드클레이

**부평구 (20개) 부평구청 평생교육과 032)509-3962**

프로그램명	운영 단체명
페인팅세상	페인팅세상
얘들아 책 들으러 올래?	부평동화읽는어른모임
모래의 상상	모래알
재미지GO,웃움지GO	책으로 놀이로
내 마음의 무늬 찾기	일상예술연구소 心
재미있는 미술꾸러미	한국 미디어 과몰입 예방협회
인생악기 프로젝트	국제오케스트라협회
일본어랑 놀자	민들레작은도서관
내 맘에'인성'맞춤	포도나무 작은도서관
꼬불꼬불	꼬불꼬불
플로리스트기초과정 및 꽃나눔	식물사랑 나눔사랑
청소년 음악교실	길산나빌레
나도야 도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부꽃마당
하하골 역사문화교실	하하골주민협의회
신나는 캘리그라피	부평5동 주민자치회
문학과 음악의 만남	꿈땅도서관
부개1동 마을공동체정원	부개1동 주민자치회
마분리 자원순환 마을	마분리공동체
해봄 in 마을_도자기	영성마을두레사회적협동조합
그림책 속 놀이를 찾아라	엄지척놀이연구소

※ 마을학교 운영 현황은 교육혁신지구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천마을교육공동체

## 인천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교육 생태계

인천마을교육공동체 비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실현

인천마을교육공동체 목적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마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공동체적 관계와 이에 기반한 실천을 통해 교육주민자치 실현

##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 과정

- 목적: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문화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
- 현황: 2021년 1~4기 운영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등 총 117명)
- 계획: 2022년 상반기 운영 예정 (자세한 일정은 추후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참고)

### 마을문화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 대상: 2019, 2020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 과정 수료자
- 내용: 마을학교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현황: 2021년 10개팀 프로그램 개발 완료
- 계획: 2019, 2020, 2021년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 과정' 수료자 대상으로 운영 예정

### 마을교육학습공동체

- 대상: 인천 관내 행정동에 거주하는 단체나 개인 대상
- 분야: 마을교육공동체의 이해, 민주시민교육, 생태환경, 에너지 전환교육, 진로교육,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역사, 대안교육, 학부모교육, 청소년사회참여, 인권, 교육복지, 다문화 등 마을교육과 관련된 분야
- 현황: 2021년 총 97팀 참가, 학습공동체 당 70만원 ~ 130만원 지원
- 계획: 2022년 총 110개로 확대 예정, 마을교육학습공동체와 동단위 거버넌스 연계 및 마을교육학습공동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추후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안내)

##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 취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공론의 장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상호 공감대 형성
- 대상:**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관심 있는 교원, 학부모, 공무원, 마을교육활동가 등
- 현황:** 교육자치 30년! 혁신교육지구 10년! 온라인 포럼(4회운영)
  - 1차: 혁신교육지구 10년!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
  - 2차: 교육과정 개정 수립의 국민참여와 거버넌스 방향
  - 3차: 혁신교육지구와 민관학 거버넌스
  - 4차: 마을학교 활성화 방안

## 교육협동조합

### 교육협동조합이란?

학교 또는 마을을 기반으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 힉 교내 교육협동조합 설립 현황 (4개교)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사업
강화여자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교육	학생건강증진사업, 학생교육복지사업, 민주시민교육사업
선학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아딧줄	매점	학생건강, 학생교육사업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교육	학생건강증진사업, 민주시민교육사업,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활성화사업
서흥꿈세움 교육사회적협동조합	교육	목공교실, 교육프로그램 사업, 도예교육 프로그램 사업, 도시생태환경교육, 교육활동가 양성 및 진로체험 교육사업

### 마을기반 교육협동조합 지원 공모 사업 안내

-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21년 공모 사업을 통해 8개 기관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상반기(1월 ~2월 중) 공모 예정입니다.

## 📎 2021 마을기반 교육협동조합 지원 현황

유형	협동조합명	주요사업
신규설립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준비하는 공동체 지원)	SW(소프트웨어) _하랑	“SW 교육”관련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발기인모집 설명회 등 지원
	다독다독 마음터	“책으로 통하는 세상 Book·世·通” 관련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조합원 연수 등 지원
	드론,코딩으로 날자	“바른게임문화교육”관련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현장탐방, 연수, 토론회 등 지원
	꿈단지	그림책 진로코칭, 생태교육 “널마다 꿈꾸고, 함께 성장”관련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현장탐방, 조합원 연수 등 지원
	행복찾기	“푸드야, 그림책아 놀자”그림책 관련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회의, 연수, 탐방 등 지원
역량강화형 (기존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삶은 연극	“상호지지구조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합원 연수 지원
마을교육 활성화지원형 (기존 사회적협동조합 학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펼독서논술토론 아카데미사회적 협동조합	“인천 앞바다 섬 초중학생들 독서토론 활동”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소	“연수의 자원과 환경을 활용한 아이들의 배움터” 교육프로그램 지원

교육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다면?



‘찾아가는 교육협동조합 알리미 연수’를 상·하반기 신청을 통해  
운영합니다.

- 운영 시기: 인천시교육청 SNS 및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신청자: 학부모, 교직원, 마을주민 등 교육협동조합에 관심있는 누구나
- 일시 및 장소: 신청자가 희망하는 시간 및 장소
- 연수 방법: 소규모 집단연수 및 온라인(줌) 연수 중 선택
- 연수비: 전액 무료 (교육청 지원)
- 신청 방법: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특화**  
→ **인천마을교육공동체 → 소통마당 → 행사신청**  
(<http://www.ice.go.kr/lecttown/view.do?m=0604&s=town&seq=16>)



※ 교육협동조합 운영교 인터뷰 영상(‘교육협동조합이 뭐예요?’)을 참고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i3ZeGSwu3Aw>)

유튜브 검색: 인천 교육협동조합



#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은?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은 인천시교육청과 연수구청의 예산 지원, 인천시교육청-연수구청-선학중학교 간 업무협약 통해 함께 운영하고 있는 4층 규모의 교육문화복합시설입니다.

우리 교육청과 연수구청의 회의, 연수를 위한 공간 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층별 주요 시설

위치	주요시설	면적(㎡)	비고
1층(필로티)	마을카페 및 목공방	561.54	
2층	마을교육지원센터(사무실, 회의실) 및 마을부엌	635.34	
3층	무한상상실, 동아리실, 기술실, 컴퓨터실	694.16	연결통로포함
4층	공연장, 댄스연습실, 체육활동실	662.34	



## 위치 및 연락처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홍보영상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학로 19

<https://blog.naver.com/spacemaeln>

☎ 문의: 032-320-0040~0043







# 우리들의 인천교육혁신지구 이야기

교육혁신지구의 다양한 현장에서 들려주는  
인천교육혁신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이야기

[마을연계교육과정] 동수마을교육과정 이야기 – 인천동수초 교사 신현주

[마을학교] 온마을학교 이야기 – 온마을학교 아름다운 벚과 함께 미우랑 Book&Art 강사 방세영

[교육혁신지구] 2인 3각 경기, 함께 하실래요? –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유혜경

[교육혁신지구] 미래교육지구 이야기 –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행정팀장 김정욱

[교육혁신지구]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 – 남동구청 주무관 이시지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을 소개합니다. – 선학중학교 학생 윤채원

[학교 내 교육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의 주체로 서다!! – 인천서흥꿈세움 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강미영

[마을기반 교육협동조합]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 – 사회적협동조합 이소 이사 유혜숙

[마을교육학습공동체] 환경 관련 ‘으쌰으쌰’ 마학공 이야기 – 마을교육학습공동체 으쌰으쌰 대표 전수영



## 동수마을교육과정 이야기

인천동수초등학교  
교사 신현주

### 마을을 준비했어요. (2015~2017년)

동수초는 2015년 행복배움학교로 지정되면서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구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서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기획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부모 단체 역량 강화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첫 번째로 학부모 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실무사님들을 통해 예산 사용을 돋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부모가 교육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블록수업의 중간들이 시간에 학부모 놀이 동아리, 책 읽어 주는 동아리, 학부모 공연단 등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육 기부단을 모집하였습니다. 인솔도우미부터 분야별 전문가 까지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 교육기부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고 흐름을 이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학부모님들과 ‘모두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 학부모와 시작했어요. 문화예술주간 (2018년)

동수행복배움학교를 시작한 지 4년 차. 그동안의 역량을 모아 학부모를 마을 강사로 모집하고 보조강사, 인솔도우미 등의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도록 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예술주간을 시작했습니다.

### 마을을 공부했어요. 마을문화예술주간 (2019년)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주간에 마을이라는 이름을 걸고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주간이 운영되었습니다. 마을문화예술주간이 확대되면서 학부모 마을 강사 외에 인천에 거주하는 마을문화예술 강사들을 모시고 좀 더 심화된 활동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강좌의 질 관리 문제, 다른 하나는 마을에 대한 교사들의 낮은 이해도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였습니다. 우선 마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하여 교사들의 소모임을 꾸렸습니다. 마을 생태, 마을 역사에 대해서 공부는 소모임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 코로나19... 그래도 계속했어요. (2020년)

모든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행복배움학교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낯선 원격수업과 들쑥날쑥한 등교 일정으로 인해 1학기 말이 되어서야 ‘교사 다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더이상 안 된다! 방법을 찾아보자!’며 2학기를 준비했습니다. 학생들과 최대한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짰고, 오후 등교도 시작되었습니다. 또 1학기에 운영하지 못한 마을문화주간을 주제로 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그에 대한 찬반 입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긴 논의 끝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행해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고, 학습격차를 우려하여 등교일에 교과 공부만 시키는 상황도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숨 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 같았습니다.



## 깊어집니다. 부개지구 마을공동교육과정 (2021년)

마을문화예술주간은 원고를 쓰고 있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올해는 지역 교육청의 제안으로 부개초등학교와 함께 부개지역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모여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 끝에 두 학교의 중간에 위치한 부개철길을 소재로 공동수업안을 만들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마을예술주간을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을이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개철길을 소재로 한 수업 이후, 아이들은 그곳이 ‘낯설면서 익숙한 곳’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을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가 깊어지는 만큼, 마을과 연계한 수업의 내용도 더욱 깊어져야겠다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 온마을학교 이야기

온마을학교 아름다운 벚과 함께 미우랑 Book&Art  
강사 방 세 영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품고 돌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아이들에게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나는 학교에서 나오는 내 아이를 기다리며 다른 아이들이 분식점이나 편의점으로 바로 향하는 것을 종종 보아왔다. 아이들끼리만 다닌다. 하교 후 아이들은 놀이터나 학교에서 어울려 놀다가 학원 차량이 오면 탑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다. 부모가 동행하는 아이는 20~30%, 나머지 아이들의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다.

COVID19 바이러스로 등교하지 않은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나마 등교하는 날마저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대화조차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 하교 후 아이들은 교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분식집과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아이들의 놀이터는 폐쇄되었고 하교 시간 이후 학교는 개방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작년에 이어 올해 내내 집에만 있었던 아이들이다. 그렇기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에 몰두하고 부적절한 미디어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토로한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만날 수 없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딱히 갈 곳도 없어서 편의점을 찾는다. 늦은 밤, 전동 보드를 타고 다니는 청소년들이 부쩍 많아졌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마을 내 학부모들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학교생활, 육아, 교육 환경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책과 명화를 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독서 동아리 활동으로 발전되었다. 이 작은 공동체는 독서 활동뿐만 아니라, 반려 식물을 함께 기르거나 마을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들도 둘러보기 시작했다.

나는 자녀 넷의 학부모이기에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은 무엇이며,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콘텐츠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 늘 고민해왔다.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아리 회원들이 아이들과 집에서 할 수 있는 북아트와 마음 나누기로 나의 재능을 나누었다. 북아트 교육을 화상 회의로 시작하였는데,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다. 그래서 미추홀구의 한 도서관에서 특강으로 우리 회원들의 그림책을 기부받았고, 부모와 아이가 참여하는 업사이클 북아트로 팝업북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서 반응이 좋았다면 재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업사이클 북아트 강의를 진행해보자고 제안하셨고,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공동체가 온마을학교로 선정되자 회원들 사이에서 업무 분담, 비용, 문서 작성 등이 부담스럽다거나, 오히려 비회원들이 수혜를 누린다며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강사를 초빙하였고, 마을의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통한 융합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나와 강사들은 아이들에게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 무한한 자원에 대해 설명하였다. 문학산 역사관 해설사 과정, 마을박물관 큐레이터 교육과정, 마을 문화예술 교육을 수료하면서 알게 되었던 무한한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마을의 자원인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첫 시간에는 아이들이 주체성을 갖고 참여하도록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와 세 번째 시간에는 자신과 가족을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섬세하게 경청하는 강사들의 모습은 밤새우던 날들의 보상과 같이 여겨졌다.

모든 활동은 아이들이 원하는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였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마인드맵과 브레인스토밍, 다양한 질문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도록 지원하였다. 그렇게 글감을 찾은 아이들은 주제부터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었다. 스토리 라인을 이미지로 구체화하여 그림과 글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였다.

쓱스러워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은 말보다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강사들은 그렇게 마음껏 표현한 아이들을 격려하였다. 또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그림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였고 오롯이 자신의 책에 집중했다. 열의에 찬 그 눈빛들은 잊을 수 없다. 아이들을 데리러 오신 학부모님들 중에는 간혹 일찍 오셔서 고생이 많다고 격려하시며 시원한 커피로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다. 아이들을 위하는 우리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다.

아이들은 서로의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엮을지 고민하고 여러 차례 내용을 수정하며 노력한 끝에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런 노력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기와 2기에 걸쳐 그림책을 제작하는 과정이 강사들에게는 시간과 노력 대비 쉽지 않은 업무의 연속이었지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 담긴 이야기들이 미래 마을의 값진 보물과 자산이라 여기며 작업에 임했다. 학교와 마을, 시청에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우리마을 스토리보드



오리엔테이션 PPT



나를 알아가는 시간

## 교육혁신지구



# 2인 3각 경기, 함께 하실래요?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유혜경

2020년 가을에 남부교육지원청 발령을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남부는 제 초임 발령지인데다가 남부 교육지원청이 있는 이곳 중구는 교사 시절의 절반 가량을 보낸 곳이라 마치 귀향한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중구는 인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입니다. 1883 개항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은 개항장부터 인천공항을 품은 영종국제도시까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참 매력적인 곳이죠.

남부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은 미추홀구·중구·동구·옹진군인데, 그중에 미추홀구와 중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과 미추홀구청, 중구청은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온 마을을 배움터로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마을을 이해하기 위해 학교 밖 마을체험연수에 나섰고, 마을교육활동가들은 마을과 학교를 넘나들며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청과 구청은 민관학 소통을 위해 협의회를 마련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 섰던 순간에도 민관학이 함께 마을교육자원지도(미추홀구편, 중·동구편, 옹진군편)와 122개의 마을교육 온라인 콘텐츠, 마을교육 워크북(초등편, 중등편)을 줄줄이 만들어냈던 일은 ‘남부의 기적’으로 회자됩니다.



마을 이해 교사 연수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마을교육자원지도

인천의 7개 자치구에서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남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소개하자면, ‘책마을 사업’,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동아리’, ‘마을연계형 학교운영위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책마을 사업’은 책을 매개로 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많은 학교에서 마을 그림책 만들기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원청과 중구청, 그리고 마을교육활동가가 함께 동네서점을 활용해 마을그림책 만들기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마을 체험과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책으로 소통하며 학생, 교사, 마을 주민들이 모두 마을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구교육혁신지구는 5년의 업무협약이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에 새로운 5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중구교육혁신지구 시즌 I (2017~2021)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즌 II (2022~2026)를 기획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과 중구청은 민관학이 함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교육혁신지구 시즌 II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첫 출발로서 시즌 II 준비를 위한 민관학 워크숍(2021.9.14.)을 개최했습니다. 중구 관내 학교 교원, 학부모, 마을활동가 50여명이 참여하여 분임별 열띤 토론을 통해 중구교육의 비전과 핵심가치(안)를 함께 도출하였습니다.

민관학 워크숍에 이어 중구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은 ‘5년을 기억하고 5년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중구 교육혁신지구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2021.10.14.)하였습니다. 1부에는 중구교육혁신지구 추진 경과 보고와 구교육혁신지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결과 발표(공주대 양병찬 교수)가 이뤄졌고, 2부에서는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이 좌장을 맡고 도성훈 교육감, 홍인성 중구청장, 김연준 학생(영종중), 이윤희 교사(신흥여중), 채상아 활동가(청청프로젝트연구소), 양병찬 교수(공주대)가 패널로 참여하여 ‘미래형 교육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중구교육혁신지구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감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김연준 학생은 갯벌 정화 활동에 참여한 경험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음을 가슴 뭉클하게 지켜보던 순간이었습니다.

공감 토크가 끝난 뒤에 이어서 중구교육혁신지구 시즌 II 비전과 핵심가치 선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결정된 비전(함께의 가치를 추구하며, 모두의 미래가 있는 곳, 교육도시 중구!)과 5대 핵심가치(긍정, 연대, 도전, 상생, 창의)는 컨퍼런스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민관학이 함께 만든 비전과 핵심 가치는 이제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중구교육혁신지구의 새로운 5년을 이끌어갈 철학이자 동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저는 교육혁신지구에 대해 얘기할 때 ‘2인 3각 경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서로의 발이 묶여 있는 ‘2인 3각’ 경기. 누구 하나가 급하게 서두르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마음을 맞추고 발을 맞추면 어느 순간 ‘으쌰으쌰’하며 결승선을 통과하고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얼싸안게 되지요. 순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속도도 안 맞고 때로는 함께 넘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함께’, ‘준중’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더 단단한 하나의 ‘우리’가 되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교육혁신지구의 성과는 결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요즘은 마을 구석구석을 밟고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마을장학사가 되어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동력이 대체 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미안함’이었어요. 마을을 누비며 보물 같은 곳들을 발견할 때마다 저를 스쳐 간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솟구칩니다. 교문 밖이 이렇게 온통 배움터인 것을……. 그 미안함은 장학사로서 학교와 마을, 마을과 마을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마을에서 잘 자라고 잘 배운다면 내 마음 속 미안함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요.

한 여행자가 스페인에서 로드 트립(road trip)을 할 때 지방의 작은 식당 웨이트리스조차도 그 동네와 주변의 역사를 줄줄이 궤고 있음에 놀랐다고 쓴 신문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이곳에서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 대해 자부심으로 신나게 마을의 역사와 명소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마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을이라면 우리 아이들도 마을 곳곳에 깃든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며 잘 자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니 저 요즘 참 바쁘네요. 그래도 함께하니 참 행복하고 저도 조금 씩 자라는 기분입니다. 힘들지만 뿌듯한 2인 3각 경기, 저와 함께 하실래요?



## 미래교육지구 이야기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행정팀장 김정욱

계양교육혁신지구는 2017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아이·어른·학교·지역이 함께하는 배움과 가르침이 문화가 되는 교육도시 계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즌 1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계양이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미래교육지구에 선정되어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과 더불어 특색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는데,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올해 초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에 위탁사무로 넘어가면서 공무원인 내가 사업 담당으로 재단에 파견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재단에서는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계양마을학교 운영, 학교연계 계양형 마을학교, 학교너머 청소년 마을학교, 1동 1교 하모니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 혁신지구 사업을 맡을 당시엔 교육혁신에 대한 개념 잡기가 많이 어려웠으나, 인천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에서 주재하는 여러 강의들과 포럼, 사례집을 공부하면서 인천의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특히,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있어서 권역별 동 단위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큰 주제를 어떻게 사업에 녹여야 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 우리 계양은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였고, 이에 맞춰 동과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사실 거버넌스가 뭐 별거 있나 싶었다.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서로 간 소통과 화합이 동 단위 거버넌스라고 생각했다. “1동(洞) 1교(教) 하모니사업”이라는 사업 주제를 가지고 계양의 권역별(효성, 계산, 작전, 계양)로 최소 1개 마을단체와 학교가 연결되는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다.

마침 사업에 관심 있는 동과 학교가 있었다. 다만, 사업 추진이 함께 되려면 어느 한쪽에 사업 비중이 쏠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사업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집행까지 연결하여 참여와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하였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각 마을단체와 학교 참여자들에 대해 비대면 화상 컨설

팅을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과 환류 가능성,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서로 논의하였다. 특정 사업 주제를 정하지 않고 마을단체와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향을 널리 열어두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었다. 1동 1교 하모니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공 제작을 통한 주변 숲 쉼터 조성, 우리 마을 컬러링 북 제작과 전시, 학교 주변 외진 곳에 시화와 벤치가 있는 휴식 공간 조성, 우리의 전통음식 만들기 및 이웃과 나누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주민과 교사,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간다.

추진 방법과 협력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지금까지 경험한 사업들과는 달라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사업 목표를 달성하려는 마을단체와 학교의 의지이다. 하반기에 시작한 사업이라 아직 한창 진행 중인데, 재단에서는 계양마을교육지원단 선생님들을 통해 각 사업별 과정을 참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보완할 계획이다. 올해 계양의 권역별로 시작한 사업이 널리 홍보되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마을 주민단체와 학교의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학교연계, 계양형마을학교



계양마을학교



1동1교 하모니사업



##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주무관 이시지

나는 2020년 1월 1일,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사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평생교육과로 배치되었다. 교육혁신지구나 마을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터라, 2019년 하반기에 구·교육청이 부속 합의를 체결하고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시작하며 학교와 교육청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면 된다는 단편적인 사실만 파악한 채 부서에 배치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혁신지구 업무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행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십수 년 전 공무원 준비를 하며 행정학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이제야 비로소 와닿기 시작했다.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역과 협력체계를 갖추어 지자체 담당자로서 행정의 마중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야 남동구 교육 혁신지구의 탄탄한 기초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힘들었을 2020년은 지자체 대부분의 부서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급박하게 돌아갔다. 유례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동구의 마을교육활동가들은 11개의 남동마을학교를 운영하였고, 학교 현장에서는 처음으로 마을연계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남동구가 다른 7개 지자체에 비해 교육혁신지구 협약이 가장 마지막으로 체결되어, 진행이 늦었다는 생각에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마을교육을 전파하시는 활동가분들과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연구와 고민을 반복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민관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과 길이며, 이것을 다지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차근차근 나아가야 제대로 된 마을교육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작년 가을부터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큰 골자 중 가장 중요한 민관학 거버넌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체계를 구성하였다. 교육혁신지구 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혁신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각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다. 단순히 담당 공무원인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육청·학교·마을교육활동가·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민관학 거버넌스의 시작인 것이다.

사실 모든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만큼은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요구되었다. 관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행정 처리에서 벗어나 민관학 각 주체들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하며, 교육청과 지자체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행정주체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남동구의 학부모이기에, 교육에 관심이 많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역의 학부모 이자 구청 담당자인 나의 성장이 곧 내 아이의 성장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관심이 결국 지역 마을교육의 성장과 연결된다는 중요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물론 현장에는 많은 주체들 간의 갈등도 있다. 나의 역할은 또한, 이러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체들의 생각·고민·갈등·해결이 모여 지역 마을교육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에서 관은 행정의 주인이 아닌 마중물 역할을 하며 소통하는 남동교육혁신지구와 더불어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1년 남은 기간, 또 나는 부지런히 발로 뛰고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정주의식을 찾기 힘들어진 시대에, 나는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닌 지금 살고 있는 남동구를 사랑하고,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업무를 하고 있다. 내년 2022년 역시 코로나 19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마을과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어가며 소통할 수 있는 남동마을교육공동체가 되길 희망한다.





##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을 소개합니다.

선학중학교  
학생 윤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회장 윤채원입니다.

저희 선학중학교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이 구축되었습니다. 마을엔은 마을과 학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 공간의 설계 과정부터 이후 운영 계획 수립 과정까지 모두 참여하였고, 선학중학교 학생들을 대표하여 인천 최초의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으로 인해 생긴 변화와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학교와 마을의 분위기입니다. 이전까지 마을 주민분들에게 학교는 그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고, 학생들에게 마을은 그저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마을과 학교는 각자의 역할을 할 뿐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문화공간이 학교와 마을을 연결해주면서 마을과 학교 사이의 어색했던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선학중학교 학생들 중에는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마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마을엔이라는 공간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학교와 마을 사이의 거리감이 회복되고 더 유연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엔을 통해 학생의 시각이 보다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공간을 넘어, 마을 사람들과 공존하며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을의 일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학생뿐만 아니라 마을 분들도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며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는 일을 꺼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엔이 건립되면서 다양한 사업을 주제로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의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시각이 학교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와 사회까지 확장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기존에 부족했던 마을의 여가 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선학동은 다른 동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연 예술 또는 여가를 즐길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혼한 공연장 하나가 없어서 주민들은 공연을 보기 위해 멀리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엔에 소공연장, 카페, 회의실 등 마을에 부족했던 문화, 여가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학생들에게는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했다는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주었습니다. 마을엔 건물을 건립하는 모든 과정에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필요한 공간은 무엇인지 학생들 스스로 고민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학중학교에서 진행하는 마을연계교육을 통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학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마을엔 건물에 설치된 컴퓨터로 정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3학년 학생들은 새로 마련된 체육 공간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목 수업이 아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선학중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모여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데, 과거에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나 교실이 부족하여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엔이 설립되면서 방음이 되는 밴드 연습실, 댄스 연습실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되면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앞으로 선학중학교는 마을공동체와 함께 더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학중학교 뿐만 아니라 인천, 더 나아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 마을엔과 같은 공간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 협동조합 마을의 주체로 서다 !!

인천서흥꿈세움 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강미영

가을은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1년의 사업을 잘 완수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서흥꿈세움 교육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올 한해를 뒤돌아보니 그동안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낸 한 해였습니다.

2019년 3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7월 31일에 교육부 인가를 받고, 그해 11월 13일 도성훈 교육감님 을 비롯하여 지자체장, 시의원, 구의원, 남부교육지원청 등 많은 정계 인사분들과 동구 관내 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하고, 목공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학부모 목공동아리로 시작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2005년에는 인천 학교협동조 합 중 유일하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현재 전문인력1명, 경력단절여성 3명, 유급근로자 1명, 그리고 이사장님과 함께 협동조합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제공형으로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게 된 저희 협동조합은 과정 중심의 교육을 구축하고자 늘 노 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목공교육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 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수업을 하면 당연히 급여가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수익은 나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을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였고, 단순히 목공수업을 통한 강사 비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목공수업 외 다른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지역의 문 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과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은 ‘동구마을교육협의회’를 창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교육협의회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였고, 마을 공유 냉장고 사업을 진행하여 공유 냉장고 를 동구 거점지역에 설치하였으며, 지역에서 식재료와 음식을 후원받아 냉장고를 채우고 동네에 필요 한 분들에게 나눔을 하였습니다. 거점공간인 유관기관에서 냉장고 관리, 식품 관리, 나눔까지 해 주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주민도 만족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저희는 학교협동조합이지만 학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을로 뻗어 나갔습니다. 문짝이 없어서 커튼을

치고 사시는 분의 집에 문짝을 시공해 드렸고, 지역돌봄센터에 필요한 넓은 책상을 만들어 기증하거나, 책상이 없는 학생의 집에 방 크기에 맞는 책상을 만들어 주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목공으로 재능기부를 하면서 협동조합으로서의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목공 재능기부로 시작하여 지역 문제, 사회 문제까지도 마을에서 같이 고민하고 참여하게 되면서 저희 협동조합은 마을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생각한 문제가 바로 취업 문제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퇴직 후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퇴직자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자활센터에서 내일키움일자리 운영기관으로 위탁을 받아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12명 선발하였고, 비록 단기 일자리 이긴 하지만 저희 협동조합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그중에 몇 분은 현재 서흥초등학교에서 방역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와 함께 목공교육 강사로 일을 하시게 되면서 점차 마을에 관심을 갖고, 마을 활동가로도 활동하시면서 취업에 성공한 분도 계십니다.

또 다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협동조합 간의 연대 사업이 있습니다. 동구의 사회적 기업과 연대하여 해당 기업에 대해 파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동구라는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이 마련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것이 가정과 학교만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돌봄은 학교만의 책임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마을 안에서 협동조합이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동구마을교육협의회의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돌봄이 가능한 곳들과 연대하여 돌봄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빠듯한 일정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협동조합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학교복합화 지역 거점공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협동조합의 공간이 지역 거점공간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학교와 지역과 소통하면서 해답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저희 서흥꿈세움 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자텃밭만들기사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동아리목공교육



##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

사회적협동조합 이소  
이사 유혜숙

마을은 나와 내가 아는 사람이 사는 곳,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곳으로 함께 살아가는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의 문화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는 현장이 마을이어야 하며,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공동체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을을 통한 배움, 마을에 관한 배움, 마을을 위한 배움을 통해 앎과 삶을 연결하는 과정, 즉 학생이 자라서 주민이 되고 그 주민의 역량이 커지면서 마을의 역량도 커지게 하는 것이 이소가 추구하는 마을교육의 방향성입니다.

마을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마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며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또, 마을교육 수업 속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일상이 공존하는 삶 속에서의 떨림의 순간을 수업에 담으면 어떨까? 수업이 곧 삶의 공간이어야 하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수업을 담는 것. 가슴 뛰는 수업을 만들어보자. 마을교육은 삶 속의 앎이다. 이런 고민과 생각들이 이소가 하고자 하는 마을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연수구에서 마을학교 사업을 처음 시작하며 저희 이소도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고, 마을이 함께 키운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1 연수마을학교 ‘문화 곳, 마을을 그리다.’는 연수구의 배울 곳, 키울 곳, 놀 곳의 의미를 담은 문화예술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비대면 줌 수업으로 차시 당 참여 인원 25명, 누적 참여 인원 180명, 총 10차시의 과정에서 지역의 마을문화활동가와 평생학습강사, 그리고 수레바퀴 꿈 교실에서 활동하는 강사 8분과 함께 마지막은 작은 전시회와 같은 성과발표회도 열었습니다.



문화 곳, 마을을 그리다



7차 테라리움 수업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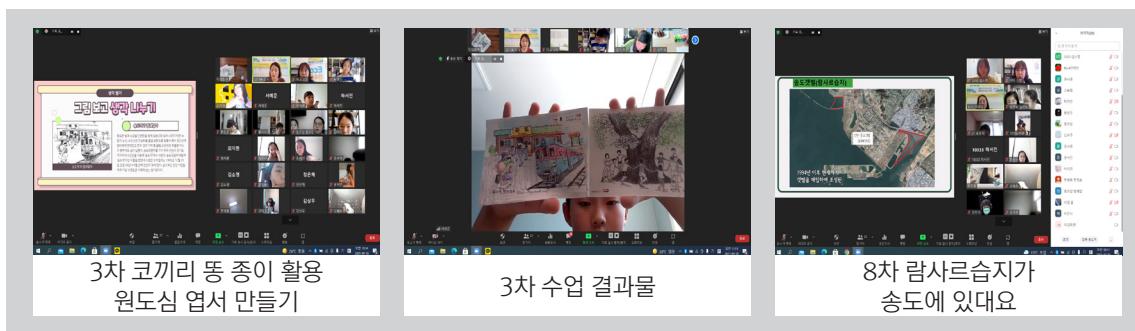


성과발표회

또한, 올 하반기 인천시교육청 주관 마을기반 협동조합 기반사업에서 마을학교 수업에 다시 참여하였고, 2021 마을기반 협동조합 기반사업 'Eco 연수를 담:따'는 마을의 인적역량과 물적자원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차시 당 참여 인원 35명, 현재 누적 참여 인원 280명, 10차시의 프로그램으로 현재 8차시까지 진행했습니다.

또 상반기에 진행한 연수 마을 학교 수업을 보완하여 지역 생활문화동아리 '어반스케치'와 협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도의 다른 이름을 지어줘', '람사르 습지가 송도에 있대요', '코끼리 뚱 종이에 그리는 송도역과 꼬마열차' 등 연수구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마을에서 배우며 가슴 뛰는 수업을 만들어보고자 했던 처음 마음처럼, 마을교육 수업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연수구의 새로운 모습을 보며 설레하는 학생들과 함께 가슴 뛰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활동 범주와 마을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장,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첫째, 마을교육공동체의 공간은 전통적인 학교와 같이 제한적 장소가 아니라 '마을'이라는 사회적 공간이 모두 교육활동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설과 장소의 개념보다는 마을주민과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은 마을 내 다양한 활동 경험으로 마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습 동아리 참여, 마을발표회 참여로 마을 내에서의 배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시민교육과 마을 의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는 학교와 마을, 아이들과 마을주민, 단체, 교육활동 간 지속적이고 자율적이며 느슨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슨한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보다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학교와 마을의 소통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의 마을교육은 지역을 알리고, 바로잡고, 실천하고, 넘나들기를 통해 지식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네트워킹을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마을주민으로, 학생으로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희 이소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 환경 관련 '으쌰으쌰' 마학공 이야기

'으쌰으쌰' 마을교육학습공동체  
대표 전 수영

저는 2018년도에 인천 서구 신현동 신축 루에블리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동네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무척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이 같으니 항상 만나는 부모님들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고 아이들 유치원 정보, 학교 학습 정보 뿐만 아니라 잠시 내 아이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아파트 육아공동체 '공감'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근처의 '인천서구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교육들도 지원해주셔서, 우리 공동체는 차츰차츰 마을공동체에 대해 알아 가게 되었고, 마을교육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의 주 양육자인 엄마들이 먼저 배우고 알아야 우리 아이들 뿐 아니라 아파트와 지역주민들까지 아우르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천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에서 마을교육학습공동체를 공모하는데 기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외에 마을교육에 관심을 갖고 배우기를 희망하는 주민들도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공동체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는 쓰레기 매립지, 생활폐기물소각장, 아파트 근처 공장단지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에는 없었으면 하는 기피 시설들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곳에 살면서 공기의 질과 환경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환경,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 질문을 하면 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함께 으쌰으쌰 해서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해 배우고 익히자는 의미로 마을교육학습공동체의 이름을 '으쌰으쌰'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더 나아가 지역 주민 분들에게 환경, 생태 보전의 중요성에 알리고,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에게 재취업의 기업도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학습 의지에 풀무질이 되었습니다.



환경 관련 여러 도서들



환경교육 전문가의 만남



마ath공 현장간담회

환경 관련 도서를 읽고 학습한 뒤 정기적인 모임과 온라인 모임을 병행하면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작은 행동이지만 집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단계 상승으로 인해 대면 모임이 더욱더 조심스러웠고, 지역 내 환경과 관련된 기관 탐방이 취소되어 무척 아쉬웠습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과 함께 환경 관련 기관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삼아 관련 분야 강사와의 만남을 추진하였고, 실시간 온라인 연수 형태로 재활용공예 지도사 과정을 배웠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만들기는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루에블리 단지 내 작은 도서관과 연계하여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지역 주민들까지도 환경, 생태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사용이 크게 증가한 일회용품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만들기 활동을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루에블리 작은 도서관과 연계하여 전기의 소중함을 배우는 ‘선풍기 만들기’ 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소재 주물럭 비누 만들기’,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며 힐링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원예 클래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을교육학습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 속 실천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주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모두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도서관 연계 전기 소중함  
‘선풍기 만들기’친환경소재  
‘주물럭 비누 만들기’

도서관 내 정기모임 진행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인천교육혁신지구 이야기**

발행일: 2021.12.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총 괄: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단 장 조선미

기 획: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전문관 김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장학사 김혜선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정각로9(구월동)



